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

성경: 렘 2:13, 15:16, 17:7-8, 19-27, 23:5-6, 31:31-34, 히 8:8-12

I.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 그 뿌리를 시냇가로 뺏어 /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라고 말한다.

A. 이 절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곧 천연적인 이해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절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피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 절들은 하나님의 분배로 수행되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킨다.

1. 여기의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렘 2:13상)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다는 것을 계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이다.
2.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며 물가에서 자란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그림이다. 신성한 분배를 받으려면, 나무들인 우리는 우리의 조성 자체가 되시기 위해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흡수해야 한다.

B. 여기서의 사상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사상과 같다. 이 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물을 주는 것은 나무의 흡수를 위한 것이며, 흡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1. 나무는 공급자이자 공급이신 하나님으로 자란다. 공급은 바로 식물들인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이다. 이렇게 분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란다. 결국 식물들과 하나님, 하나님과 식물들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요소와 본질과 조성과 외양을 갖는다 — 골 2:19.
2. 우리는 모두 생수이신 하나님을 흡수함으로써 그분의 요소와 본질로 조성되고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보아야 한다. 생명의 성장이 부

죽할 때, 믿는 이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영망이 될 것이고, 교회생활은 손상될 것이며, 몸의 생활은 파괴될 것이다.

3.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생명이 자라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음으로(사 37:31) 하나님을 흡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감추어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마 6:6, 14:22-23). 그리스도인이 강화되고 빛 비춤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 기뻐하고 믿는 것,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련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는 것, 위로를 받는 것 등은 모두 기도 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밀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달려 있다(단 6:10, 골 4:2, 딤후 3:14-17).

II.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길은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다 — 렘 2:13.

A.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에 관한 긴 기록 이후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을 반복하여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안식의 실재이시다 — 히 4:7-9, 사 30:15상.

1. 우리가 단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하는지만 알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성한 원칙에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 a.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시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분의 권위가 그분의 원수인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 행사되려던 참이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다 — 창 1:26, 31, 2:1-2.
 - b. 이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기념되었다(출 20:8-11). 하나님의 일곱째 날은 사람의 첫째 날이었다. 창조된 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
2. 사람은 먼저 일하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 이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문제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식하고 일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누린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신성한 원칙이다 — 비교 마 11:28-30.

메시지 8 (계속)

- a.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어떻게 그분의 신성한 일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지를 모를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통해 성취하신 것을 누린다.
- b.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그 영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졌음을 의미한다. 오직 이러한 누림으로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 행 2:4상, 12-14.

B.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표시를 반드시 지녀야 한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채우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일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을 일하기 위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수고하기 위한 우리의 에너지로 소유함으로써 일한다 — 출 31:13, 17.

C.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누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봉사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몸 안에서의 교통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 출 31:14-15.

D. 교회를 건축하는 주님의 일은 하나님을 누림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내적인 안식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 고전 3:9, 15:58, 16:10, 고후 6:1상.

III. 예레미야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예레미야의 선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해답이심을 가리킨다. 예레미야가 묘사한 그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심을 보여 준다.

A.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그리스도 (렘 23:5-6),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2:13), 우리의 음식이신 그리스도(15:16), 새 언약과 그 모든 축복들의 실재이신 그리스도(31:31-34, 히 8:8-12)에 대해 말한다.

- 1. 한 면에서 우리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경륜과 동의어로,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과 실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렘 31:31-34, 욥 10:13, 비교 엡 3:9.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8 (계속)

- a. 새 언약의 모든 주요 항목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분배의 내용들이다. 여기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를 신화시키는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이 모두 포함된다.
 - b. 사도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을 위한 사역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둔 새 언약의 사역이다 — 딤후전 1:3-4, 비교 고후 3:3, 6.
2.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길 혹은 성취하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는 새 언약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 — 고후 2:12-4:1.
- B. 그리스도는 새 유언, 새 언약의 실재, 즉 하나님의 온 존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시다.
1. 유산들이 많지만, 이 모든 많은 유산들은 사실상 한 인격, 곧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 사 42:6, 49:8, 렘 31:31-34, 히 8:8-12, 요 20:22, 엡 3:8.
 2. 새 유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들은 다함이 없으며,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영을 통해 체험하고 누리기 위한 것이다 — 히 9:15.
 3.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초점을 둔 새 언약의 길, 곧 생명으로 이끄는 길로 행함으로써 우리 조상들의 ‘옛길’로 가야 한다. ‘결길’은 사탄이 그의 교활한 술수로 계획한 길이며 멸망으로 이끈다. 결길로 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지만, 옛길 곧 뉘인 길로 가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 렘 18:15, 비교 마 7:13-14.
 4. 하나님은 새 언약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한마음과 한길을 주신다(렘 32:39-41). 한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이며, 한길은 신성한 역량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31:33-34). 이 한마음과 한길이 한마음 한뜻이다(행 1:14, 2:46, 4:24, 롬 15:6).
- C. 승천하신 분으로서 하늘들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기신 새 언약을 지금 집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새 유언 안에 담긴 모든 유산들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 히 12:2, 7:25, 8:1-2.
1. 새 언약 곧 새 유언인 이 유언장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집행되며 시행되고 있다.

메시지 8 (계속)

2. 새 언약은 우리에게 새 유언으로 남겨졌고,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의 비밀한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것을 집행하고 계신다.
3.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들에 계시고, 살아 계시며, 신성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분은 새 언약 곧 새 유언의 모든 세부 내용을 집행하시면서, 그것에 포함된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유용하고 실재가 되게 하실 수 있다.
 - a.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심으로써, 즉 우리가 새 언약의 실재 안으로 이끌리도록 기도하심으로써 새 언약을 집행하고 계신다 — 히 7:25.
 - b. 새 언약의 중보자이자 집행자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새 유언을 집행하고 계시며, 새 유언의 유산들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 — 히 8:6, 9:15, 12:24.
 - c. 새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리스도는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서약이시다. 그분은 새 유언의 효능을 보장하시고 확증하신다 — 히 7:22.
 - d. (하늘에 있는) 참장막의 사역자로서 그리스도는 새 유언의 유산들 곧 축복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새 언약의 사실들을 우리의 체험에서 효력이 있게 하신다 — 히 8:2.
 - e. 양들의 큰 목자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목양에 의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고 계신다 — 히 13:20.
- D.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적용되는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 히 12:1-2, 골 3:1.
 1. 새 언약을 집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한다 — 히 7:25, 4:16, 10:19, 22.
 - a.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는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셨지만, 충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다.
 - b.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
 - c. 머리이신 분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동안, 이 땅에서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반응하여, 그분께서 새 언약을 집행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부응하고 반항하고 있다 — 엡 1:22-23, 4:15-16, 행 6:4.

결정 연구 개요

메시지 8 (계속)

2. 우리의 눈이 반드시 열려, 모든 유산들을 포함한 새 유언이자 새 언약인 이 유언장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 엡 1:17-18, 행 26:18-19.
 - a.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이제 성취된 모든 사실들의 목록이 유언장 안에 우리의 유산으로 적혀 있다 — 눅 22:20, 히 9:16-17.
 - b.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유언장 안에 있는 유산들이라는 것을 본다면, 가련한 거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유산들을 받을 것이다 — 롬 8:17, 엡 3:6, 히 6:17, 1:14.
 - c. 새 언약 곧 새 유언에 대한 하늘에 속한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의 관념은 바뀔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변혁될 것이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이다 — 고후 5:13, 계 5:6-13.
- E. 우리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를 정의하기 위해 신약의 스물일곱 권의 책들이 모두 필요하다.
 1. 우리가 신약 전체의 빛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집, 새사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갖는다는 것을 볼 것이다.
 2. 결국 이 새 언약은 천년왕국을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이 새 언약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을 이끌어 올 것이다.